

텔레비전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나타난 신자유주의 시대의 생존법

박상완*

<차례>

1. 들어가며
2. 공동체의 재편과 폭력적 논리들
3. 경제적 무(無) 재생산자의 배제
4. 신자유주의 사회의 성공 신화
5. 나가며

<국문초록>

텔레비전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서로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교화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이 논문은 작품 안에 그려진 교도소 내의 생활과 그 의미를 살펴본 글이다.

교도소 수감자들은 돈과 명성을 지닌 주인공 김제혁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적 집단으로 재편된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보호, 혹은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폭력과 편법이 자행된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 우리가 속한 집단을 위한 당위적 행동으로 그려지면서 옹호된다. 이렇게 재편된 자본주의적 공동체에서 경제적 재생산을 저해하는 인물들은 부정적으로 형상화된다.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물들이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강조되는 것은 노력과 희생이다.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인간은 경제적 재생산을 가능케 하고, 이러한 노력은 다시 전체를 위한 희생으로 미화된다. 개인의 노력과 희생을 통해 유지되는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러한 노력과 희생을 하나의 성공 신화로 제시한다.

한국사회에서 신자유주의는 이미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부터 예상되어왔었고, 1990년대 이후에는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암묵적 동의를 얻으면서 자리를 잡았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그려진 노력이라는 생존법과 신자유주의 시대 성공 신화에 대해 양가적 감정이 만들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사회 구성원들은 노력으로 이루어진 성공 신화에 대해 환멸을 느끼기도 하지만 동경하기도 한다.

* 충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주제어 : 노력, 마약, 성공, <슬기로운 감빵생활>,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전체주의, 텔레비전드라마

1. 들어가며

텔레비전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¹⁾은 그 동안의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었고, 등장하더라도 부분적으로만 그려졌던 미지의 공간인 교도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다. 이곳에는 메이저리그 진출을 앞두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살인자로 전락해버린 주인공을 비롯해서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수감자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24시간을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이러한 상호 작용을 통해 차츰 교화되어 안정된 삶을 되찾게 된다. 이 글은 이러한 교도소 생활의 의미와 그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구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주목한 것은 세 가지 이유에서이다. 첫째, 상술했듯이 교도소라는 특별한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푸코에 따르면 근대 감옥의 등장은 규율의 메커니즘이 사법제도를 식민지화하는 계기였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자유의 박탈이라는 평등주의적 징벌이 범죄와 형기를 수량적 등가관계로 확립시키면서 시간의 경제적 환산이 이뤄진다는 점과 이를 통해 개인을 가두어 교정하고 순종하게 만듦으로써 사회의 규율 메커니즘이 재생산된다는 점이다.²⁾ 다시 말해 범죄자에 대한 징벌과 교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교도소는 한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환유적 공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

둘째, 가족 같은 사회적 공동체가 중요하게 다뤄지기 때문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수감자들이 저지른 범죄는 가족, 혹은 가족 같이 가까운 주변

1) 정보훈 극본, 신원호 연출, <슬기로운 감빵생활>, tvN, 총16회, 2017.11.22~2018.01.18.

2) 미셸 푸코,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나남, 2016, 351~354면 참조.

사람들과 깊은 관련이 있을 뿐 아니라 이들은 교도소에서 마치 가족 같은 관계를 형성한다. 수감자와 수감자, 수감자와 교도관, 그리고 교도관과 교도관 사이에 깊은 유대감과 소통이 그려지면서 유사가족을 구성한다는 뜻이다. 엄격한 서열과 지배·피지배의 관계 속에서도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다는 관점이 녹아들게 되면서 이러한 집단 안에서의 교화는 휴머니즘으로 포장된다. 역사적으로 사회와 가족이 언제나 변증법적 관계에 놓인다는 점³⁾을 고려해보면 이는 공동체의 미화를 통해 사회문화적 메시지를 생성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해석과 반응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는 작품이기 때문이다. 이 작품은 방송 전에는 미지의 공간인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여 범죄를 미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⁴⁾가 있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다.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⁵⁾했을 뿐 아니라 출연 배우가 교정본부의 명예 교도관으로 위촉⁶⁾되는 등 이 작품은 대중의 입장에서든, 국가의 입장에서든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텍스트이다. 그렇다면 교도소에서의 ‘슬기로운’ 생활은 ‘헬조선’이라 말해지는 한국사회의 지침서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작품에 그려진 사건 해결 과정에는 수많은 편법, 특혜, 불법이 동원되고, 그것은 설령 가족에 같은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도 용인될 수 없는 적폐(積弊)이다. 작품에 (무)의식적으로 묻어있는 관점들은 이러한 편법, 특혜,

3) 김기봉, 「우리시대 가족이란 무엇인가 : 영화로 보는 질문과 대답」, 『드라마연구』 제 30호, 한국드라마학회, 2009, 124~125면 참조.

4) 박소영, 「불편한 감옥 스토리, 신원호 PD는 다를까?」, 『OSEN』, 2017.11.22. (<http://osen.mt.co.kr/article/G1110780774>, 2018.4.16. 검색.)

5) 시청률 조사기관 AGB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11회부터 평균 시청률 9%를 넘으며 <로봇이 아니야>(MBC), <이판사판>(SBS)을 넘어섰고, 13회부터 평균 시청률 10%를 넘으며 <흑기사>(KBS)를 추월해 동시간대 수목드라마 시청률 1위를 기록했다. 최고 시청률은 최종회 11.195%였다.

6) 교정기획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팽부장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되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2.28. (http://www.corrections.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181&strAnsNo=A&strOrgGbnCd=102000&strRtnURL=COR_2030, 2018.4.16. 검색.)

불법을 옹호하는 입장에 가깝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공 신화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이 작품에 대한 양가적 해석 및 반응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문제적인 작품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지점이다. 이 작품은 범죄자와 비(非) 범죄자, 수감자와 교도관, 정상과 비정상 등 이항대립적 요소들을 상정하고, 이렇게 이루어진 사회 안에서 개인에게 어디에 위치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선택하도록 촉구한다. 삶의 방식을 개인 스스로 선택하게끔 하는 자유를 준다는 점에서 이는 주체의 능동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자유주의가 “개인이 자유를 통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인식하고 대할 것인가를 규정함으로써 권력에 종속시키는 주체화/예속화의 권력”⁷⁾이라고 본다면 이는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자율성을 내세움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개인을 돌볼 책임을 방기⁸⁾한다는 점이 더욱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결국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선택하지 말아야 할 선택지에 부정적인 의미를 담거나, 돌보지 않고 단죄만 하는 반쪽짜리 국가를 법적 공정성으로 미화하는 바, 생존이 생활이 된 신자유주의 시대의 논리를 감추지 않고 그대로 노출한다. ‘슬기로운’이라는 수식어가 지시하는 교도소의 생존법을 작가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 인식했는지와는 별개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그려진 ‘노력하고 인내하는 삶의 방식’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나타난 교도소에서의 생활과 그에 담긴 이데올로기를 논구하고자 한다. 주인공 김제혁의 행보에 따라 1~2회가 구치소, 3~16회가 교도소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본편이라 할 수 있는 서부교도소의 수감자들을 중심으로

7) 서동진,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해부학 혹은 그로부터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김상민 외, 『속물과 잉여』, 지식공작소, 2013, 202면.

8)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 -자기계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2013, 24면 참조

논의를 전개할 것이고, 구치소와 교도관들의 이야기는 논지 전개 과정에서 보완적으로 언급할 것이다. 먼저 2장에서는 수감자 집단의 변화를 살핀 뒤 이들의 사건 해결 과정에 담긴 문제점들을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3장에서는 배드엔딩을 맞이하는 인물들을 통해 특정 인물들이 어떤 이유에서 배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4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사회적 공동체에 안주하는 인물들과 그들을 통해 구체화되는 신자유주의의 논리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글의 구성은 상술한 바와 같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특정 삶의 방식을 먼저 제시하고, 그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요소들을 배제한 뒤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뤄진 것이다. 개인과 사회의 의미, 관계, 역할이 끊임없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생존과 교화라는 미명 하에 배타적 통합을 수행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내면화된 폭력성과 분열적 욕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마련되리라 기대한다.

2. 공동체의 재편과 폭력적 논리들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대한민국 최고의 마무리 투수인 슈퍼스타 김제혁이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처음 구치소와 교도소 환경에 낮설어하던 김제혁은 점차 수감자들에게 마음을 열게 되고, 나중에는 그들 사이의 리더가 되면서 주도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 이 장에서는 김제혁의 등장 전후 수감자 집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피고 김제혁 중심으로 재편된 수감자들의 사건 해결 과정에 담긴 문제점들을 살펴볼 예정이다.

김제혁이 서부교도소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 인물들은 다음과 같다.

‘장기수’는 살인으로 25년형을 선고받은 조직폭력배로 서부교도소 2상 6방의 방장이다. ‘문래동 카이스트’는 사기도박으로 3년 6월형을 선고받은 철강소 업자이고, ‘장발장’은 상습절도로 1년형을 받은 청년 백수이다. ‘고박사’는 배임·횡령으로 5년형을 받은 대기업 과장이고, ‘한양’은 마약 복용으로 10월형을 받은 명문대 출신 약사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고박사’와 ‘문래동 카이스트’가 이감되고, 이들을 대신해 ‘유 대위’와 ‘똥마니’가 새롭게 들어온다. ‘유 대위’는 상해치사로 3년형을 받은 육군 대위이고, ‘똥마니’는 죄목과 형량이 설명되지 않는 조직폭력배이다. 이 외에도 같은 방을 쓰지는 않지만 김제혁을 돕는 ‘법자’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갚지 못해 교도소에 오게 된 청년이다.)

2상 6방의 수감자 집단은 친밀하고 유대감이 높은 관계로 그려진다. 1~2회의 구치소 수감자들이 교도소에 가기 전 잠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관계였다면,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을 함께 지냈고, 지낼 사이이다. 이들이 어떤 인물이고 어떤 관계인지는 첫 번째 사건인 라면물 끓이기에서부터 드러난다. 안전상의 이유로 교도소에서는 미지근한 물만 제공하는데, 이에 불만인 수감자들은 한밤중 교도관 몰래 온수기를 조작해 뜨거운 물을 만들어 함께 라면을 끓여 먹는다. 이처럼 수감자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먹는 <장면 1>과 같은 상황은 매 회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른바 ‘식탁의 미장센’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장면과 상황을 통해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수감자 집단에 유사가족¹⁰⁾으로서



<장면 1>

9) 작품 안에서 인물마다 실명이 불리거나 별명이 불리는 등 다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소개된 명칭대로 인물을 지칭하도록 하겠다.

10) 양승국, 「응답하라 연작의 서사 전략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성: <응답하라

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음에도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나눠먹는 식구(食口)¹¹⁾이자, 인간적 유대감과 소통을 통해 결합된 유사가족인 것이다.

그런데 장기수, 고박사, 문래동 카이스트, 장발장, 한양으로 구성된 유사가족에는 명확한 서열이 존재한다. 최상위에 놓이는 것은 장기수다. 서부교도소에서 가장 오래 복역 중인 그는 교도관들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인물로 2상 6방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복종한다. 그 아래에 문래동 카이스트와 고박사가 위치한다. 이들은 장기수의 말에는 복종하지만 다음 계층인 장발장과 한양보다는 우월한 위치에 있다. 문래동 카이스트가 자신의 전문지식을 이용해 터무니없는 행동을 해도, 고박사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고전을 매일 같이 써도 다른 사람들은 그저 핀잔만 할 뿐 이들의 행동을 가로막지 않는다. 마지막은 장발장과 한양이다. 장발장은 아버지라 부르는 장기수의 말에 절대 복종하며 잡다한 일을 도맡아 하는 인물이고, 한양은 모든 수감자들에게 무시를 받는 천덕꾸러기 같은 인물이다. 이들 세 계층의 권력관계는 매우 공고하다. 웃음을 유발하거나 극적 분위기의 이완이 필요할 때 한양이 문래동 카이스트에게 대들거나 간죽거리는 상황이 간혹 등장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권력관계가 역전되지 않는다.

김제혁은 이러한 유사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남자를 폭행한 죄로 기소된 김제혁은 다음 두 이유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는다. 첫째, 미수에 그친 피해자가 도망을 쳤는데 끝까지 쫓아갔다는 점, 둘째, 쫓아가서 트로피라는 흉기로 폭행을 했다는 점이다.¹²⁾ 이에 1심 재판부는 김제혁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아닌 과

1988>의 사·공간의 구조와 서사적 목소리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41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6, 19~21면 참조.

11) 윤석진, 『TV 드라마, 인생을 이야기하다』,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103면 참조.

12) 김제혁 사건은 실제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2014년 한 아파트에 침입한 도둑이 집주인에게 폭행당해 뇌사에 빠졌다가 결국 사망하게 된 일명 '도둑 뇌'

잉방위라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다. 구치소에 수감된 김제혁은 항소하지만 2심 도중 피해자가 뇌사에 빠져 원심이 유지되고, 뇌사에 빠진 피해자는 결국 사망한다. 때문에 김제혁은 잘못이 없는 자신이 억울하게 교도소에 오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함께 지내는 2상 6방의 사람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어울리려 하지 않는다.

김제혁이 수감자들에게 마음을 열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과정은 은퇴를 선언했다가 번복하는 5~6회에서 그려진다.

김제혁 소장님 이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야구 다시 안 합니다. 절대 안 해요. 진짜 야구 관췌다구요. 저 불사조 아니에요. 영웅도 아니고. 저 운도 드럽게 나쁜 놈이에요. 저보다 인생 꼬인 새끼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 나보다 인생 불쌍한 새끼 있으면 나와 보라고! (중략)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암수술하고 어깨수술하고 재활만 3년 했어! 나 혼자서! 오라는 구단 한 군데도 없는데 나 혼자서...3년 훈련했어. 포기하고 싶었지. 하루에도 수백 번 포기하고 싶었지. 근데...어떻게 포기를 해? 야구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포기를 해? 나도 야구하기 싫었어! 나도 야구하기 싫었다고! 그냥...떠밀려서 한 거야. 그냥...떠밀려서 한 거라고 아, 그래도 한

사사건이 그것이다. 1심 법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는 흥기 상해로 판단, 집주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2심과 3심에서도 이 판결은 유지·확정되었다. 당시 언론의 편향된 보도로 인해 법원이 잘못된 판결을 했다는 여론이 일기도 했으나, 사실 관계는 그렇지 않았다. 술에 취해 귀가한 20대 집주인은 50대 도둑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뒤 도망치려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고 뒤이어 저항의 의지가 없는 피해자를 빨래 건조대, 벨트 등으로 4~20분간 구타하였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뇌사에 빠져 병원비가 늘어나자 피해자의 형은 병원비에 부담을 느껴 자살했고, 피해자의 조카는 피의자를 엄벌에 처해달라는 탄원서를 냈으며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런 점에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김제혁 또한 유죄가 분명하다. 재판부의 판결처럼 저항 의지가 없는 피해자를 쫓아가 트로피라는 흥기로 무차별 폭행을 가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은 명백한 과잉방위, 보복폭행이기 때문이다.

몇 년은 좋았어. 내 인생도 이렇게 꽃을 피우는구나했었지. 근데 재수 없는 새끼는 어쩔 수가 없어요. 나 이제 살인자래. 나 지금 살인자야. 난 죽어라 열심히 운동한 죄밖에 없는데. 나 살인자래. 내가 왜 살인자야?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내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많이 했냐고! 왜 나한테만 이래! 왜 내 인생만 이렇게 좇 같냐고! 씨발 왜! 왜 내가 저딴 새끼들이랑 같이 있어야 하냐고!

- 5회, 1시간 27분 13초~1시간 31분 26초

김제혁은 국민영웅이라는 화려한 겉모습과 달리 외롭고 고통스러운 내면을 지닌 인물이다. 대중은 김제혁을 노력과 인내의 아이콘이라 부르지만 그는 누구보다 힘들게 살아왔고 그 고통을 몰라주는 주변 사람들과 세상에 대해 원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도소에 오게 되고 또 다시 재활이라는 고통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동안 억눌러왔던 원망과 분노는 위 대사처럼 한순간에 터져 나온다. 김제혁은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에게 욕을 퍼붓고 죄가 없는 자신은 ‘저만 범죄자들과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외친다.

하지만 김제혁의 분노는 금세 사그라진다. 김제혁은 위와 같이 외치고 은퇴 선언을 한 뒤에도 내심 후회하면서 반복할 기회를 찾는다. 이러한 속마음을 눈치 챈 친구 교도관 이준호와 2상 6방 수감자들은 몰래 계획을 세운다. 김제혁에게 수면제를 먹여 비몽사몽해하는 사이 꿈에 어린 시절 은사가 나와 계속 야구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연극을 하는 것이다. 물론 수면제를 먹지 않은 김제혁은 이 허술한 꿈 연극을 눈치 채지만 그는 수감자들에게 속은 척 연기하고 은퇴를 반복한다. 즉 수감자들이 자신들을 거부하는 김제혁에게 지속적으로 연대의 손길을 내밀고 김제혁이 그 손길을 받아들이는 소통의 과정¹³⁾을 거치면서 김제혁은 비로소 유

13) “사회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유대를 형성하는 끈은 소통이다. 가족이기 때문에 소통

사가족의 일원이 된다.

김제혁의 등장으로 인해 앞서 언급했던 2상 6방의 공고한 권력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기존의 최고 권력자였던 장기수가 소위 ‘뒷방 늙은이’처럼 물러나고 그 자리를 김제혁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이다. 김제혁과 함께 중간자 위치였던 문래동 카이스트와 고박사는 다른 곳으로 이감되어 김제혁의 경쟁자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새로 들어온 유 대위와 뜰마니는 김제혁의 아래에 위치함으로써 2상 6방은 김제혁 중심의 공동체로 재편된다.¹⁴⁾

그렇다면 기존 권력자와 신흥 권력자인 장기수와 김제혁의 차이는 무엇일까? 본래 장기수가 최고 권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장 오래 복역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복역 기간을 교도소에서의 나이로 본다면 장기수는 서부교도소에서 최고 연장자라 할 수 있고 많은 나이는 자연스럽게 그에게 권위를 부여한다. 하지만 그만큼 장기수의 권위는 교도소 내에서만 존중받는 것이다. 출소 뒤 하고자 하는 밥차 같은 사업이 이미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듣고 화를 내는 16회의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교도소에 오래 갇혀 있어서 세상 물정 모르는 인물이다. 교도소 밖 세상, 다시 말해 평범한 현실의 논리에서 장기수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다. 반면 김제혁의 경우는 다르다. 이미 사회에서 국민영웅이었던 그는 돈과 명성, 인맥 같은 실체적인 힘이 있는 인물이고, 후술하겠지만 그 힘은 교도소에서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가능케 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쉽게 말해 김제혁은 교도소의 안과 밖에 존재하는 자신의 힘, 정확히는 ‘돈’을 이용해 사건을 해결한다. 장기수와 김제혁의 차이는 이처럼 교도소 안과 밖을 아우르는 실체적 힘의 유무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하므로 가족이 된다.” (김기봉, 앞의 논문, 127면)

14) 수감자들 서로간의 호칭이 정리되는 것은 김제혁 중심으로 재편되는 수감자들의 권력 관계를 보여준다. 한양, 유 대위, 뜰마니는 김제혁을 ‘형(님)’이라 부르며 따르고, 다른 인물들은 그를 ‘김 선수’라고 부르며 존중해준다. 김제혁도 장기수를 ‘형님’이라고 부르고, 다른 인물들에게는 별명 뒤에 ‘씨, 남’자를 붙여 부른다.

그러므로 2상 6방은 나이라는 권위로부터 권력이 생성되는 구조에서 돈이라는 실체적 힘으로부터 권력이 나오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기존의 2상 6방은 최고 연장자 남성인 장기수에 의해 지배되는 형태였다는 점에서 사전적/전통적 의미에서의 가부장제에 가깝다. 하지만 돈이라는 권력을 지닌 김제혁을 중심으로 재편된 2상 6방은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성격을 띠게 된다. 이때의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란, 과거 봉건제 사회에서의 군사력이나 무기 같은 강압 수단을 경제적 강제와 같은 평화적인 양식으로 대체해 독점하는 권력을 뜻한다.¹⁵⁾ 교도소 내의 다른 누구보다도 돈이 많고 인맥이 넓은 김제혁, 그리고 그가 이를 바탕으로 공동체의 리더가 된다는 점은 교도소라는 격리된 공간조차도 자본주의 질서에 잠식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¹⁶⁾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발생한다. 새롭게 등장한 자본주의적 리더 김제혁으로부터 각종 폭력적 논리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한다는 미명 하에 각종 폭력이 정당화되는 상황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김제혁과 염 반장의 대립이다.(16회) 5회까지 서부교도소 목공장 반장을 맡으며 같은 수감자들의 야근 수당을 갈취하던 염 반장은 다른 곳으로 이감되었다가 14회 말미에 잠시 서부교도소로 복귀하게 된다. 김제혁이 자신을 음해했다고 여긴 염 반장은 앙심을 품고 지속적으로 김제혁을 협박한다. 하지만 출

15) 마리아 미즈는 봉건제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로 전환되면서 생산자, 생산품, 생산수단에 대한 가부장적인 약탈적 전유 양식이 비폭력적인 양식으로 대체되었을 뿐 폐지되지는 않았다고 본다.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163~164면 참조)

16) 교도소 수감자는 사비라 할 수 있는 영치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닐 수 있다. 하지만 영치금이 300만원인 수감자는 거의 없을 정도로 이들은 매우 빈곤하기 때문에 작은 돈 문제로도 큰 갈등이 벌어지기도 한다. 반면 김제혁은 언제나 영치금이 넉넉할 뿐 아니라 법자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납해줄 정도로 부유하다. 그가 염 반장과 갈등을 빚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이러한 재력가라는 측면이 협박의 대상으로 적합했기 때문이다. 또한 돈만 주면 뭐든 해주는 가상의 대행업체 ‘옥바라지 닷컴’(13회)을 통해서도 자본의 논리가 교도소를 지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소를 앞둔 김제혁은 꿈쩍도 하지 않고 염 반장의 협박을 무시한다. 독이 오른 염 반장은 부하들을 시켜 법자와 뜰마니를 폭행하고, 재심을 앞둔 유 대위를 협박하며, 김제혁에게 요구하는 돈을 주지 않을 경우 여동생 김제희에게 위해를 가할 것이라고 협박한다. 교도소 안과 밖의 사람들이 모두 위기에 처하자 분노한 김제혁은 아령을 들고 염 반장을 찾아간다.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 김제혁의 도움을 받았던 무기수가 김제혁 대신 염 반장을 때려눕혀 사건은 일단락된다.

이 전에도 김제혁에게는 수많은 사건들이 발생했고, 그때마다 김제혁은 자신의 기지로, 혹은 가진 돈과 인맥을 동원해 사건을 해결해왔다.¹⁷⁾ 하지만 이 마지막 사건에서는 자신의 공동체 구성원이 위기에 처하자 다시금 폭력을 휘두르고자 한다. 이처럼 김제혁은 평상시에는 그 어떤 일에도 동요하지 않다가 특정 요인이 개입되었을 때에는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는 분노 조절 장애 질환자이다.¹⁸⁾ 물론 어떤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지키는 것은 리더가 짊어진 책임이자 의무일 수 있다. 그러나 김제혁이 정당방위가 아니라 과잉방위로 사람을 죽였듯이 이러한 보호 행동이 폭력과 살인이라는 점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목적이 선하더라도 그 수단이 선하지 않다면, 게다가 그 수단이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이라

17) 법자 에피소드가 대표적이다. 김제혁은 변호사를 통해 법자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다. 이에 감복해 김제혁에게 충성을 맹세한 법자는 훗날 목공소 반장 선거에서 마약사범들을 회유해 김제혁이 승리하는 데 일등공신이 된다.(7회) 돈과 인맥이 서로를 낳고 그렇게 만들어진 힘이 사건 해결에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18) 정식 의학 명칭은 ‘불규칙적 폭발 장애(inter mittent explosive disorder)’로, 장기간에 걸쳐 쌓인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상황에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느닷없이 화를 내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증상을 말한다. 본래 분노는 분노표출(anger-out), 분노억제(anger-in), 분노통제(anger-control)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표현되는데, 표출은 화가 났을 때 이를 걸어로 드러내는 것이고, 억제는 화는 나 있지만 걸어로 드러내지 않는 것이며, 통제는 화가 난 상태를 자각하고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한국학술정보, 2005, 24면 참조) 김제혁은 평상시에는 감정기복이 없다가 가족이나 가족 같이 가까운 사람이 위협을 받으면 화를 참지 못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외부로 표출, 위협을 가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분노 조절 장애 질환자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면 그것은 더더욱 정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목적을 위한 수단의 정당화라는 폭력적 논리를 만들어낸다. 나와 관계없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만은 해하게 둘 수 없다는 강박적 인식이 낳는 폭력은 이후 여러 차례 반복된다. 김제혁은 자신을 불태워 죽이려던 뜰마니가 무기수를 죽일 뻔하자 샤워실에서 뜰마니를 죽기 직전까지 폭행하고,(11회) 평소 수감자들에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며 원칙을 준수하던 교도관 이준호도 팽 부장의 가족을 협박하는 수감자들을 폭행한다.(16회) 이러한 폭력 이후에 가해자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 것처럼 작품 안에서 그것이 문제시되지 않고 오히려 긍정되는 것은 ‘그들이 먼저 ‘우리를 공격했고, 우리가 위협해졌을 때 보복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는 배타적/이기적 인식을 기저에 깔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사건의 해결 과정에서 각종 부조리가 무비판적으로 용인되는 상황이다. 폭력이 공동체의 일원이 위협에 처하는 상황에서만 제한적으로 등장한다면 이 두 번째 문제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거의 모든 사건의 해결과 이야기 전개 과정에 걸쳐 나타난다. 초반부 구치소에서의 사건¹⁹⁾에서만 김제혁의 기지가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 그 이후의 모든 과정에는 수많은 편법·불법·특혜가 동원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9회의 고박사 에피소드다. 대기업 과장이었던 고박사는 상사의 잘못을 대신 뒤집어쓰고 복역 중인 인물이다. 그런데 상사는 고박사에게 월급의 3배와 자식의 유학까지 책임질 테니 다시 한 번 누명을 써달라고 제안한다. 이러한 사정을 들은 2상 6방 수감자들과 교도관 팽 부장은 고박사를 돕기로 한다. 고박사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접견

19) 구치소에서 김제혁은 나이 든 수감자를 하대하는 조직폭력배 갈매기를 폭행한다. 이에 앙심을 품은 갈매기는 칼을 준비하는데, 김제혁은 교도관들에게 사인을 해주던 중 불시검방 날짜를 알게 되고 이를 이용해 칼을 소지한 갈매기를 징벌방으로 보낸다. 또한 이 폭행 사건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는 조 주임을 친구의 동생인 기자 이준돌에게 제보, 조주임을 축출시킨다.

을 온 상사의 제안을 녹음한 뒤 돈을 요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공무원인 상사의 딸에게 녹음 파일을 보내겠다고 협박한다.

여기서의 문제는 도청과 협박이라는 범죄의 정당화뿐 아니라 원칙을 깨는 것까지도 옹호된다는 사실이다. 고박사가 녹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팽 부장이 교도관 신분임에도 그를 도와 도청을 해주었기 때문이다. 즉 팽 부장은 자신의 직업윤리를 위배하고 교도관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것도 범죄를 저지르는데 이는 교도소에도 인간적인 정이 남아 있다는 식으로 무마된다.²⁰⁾ 원칙과 상식이 무너지고 온갖 적폐가 통용되는 상황은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이 그려진다. 김제혁이 징벌방에 간 장기수를 빼오기 위해 교도소장과 인터뷰 거래를 하고 그 보답으로 교도소장이 온실을 개조해 야구 연습장을 만들어주는 것(5회), 김제혁이 교도소에서는 불법 물품인 각종 운동기구와 야구공 등을 소지하고 이를 팽 부장과 이준호가 모르는 척 해주는 것(6회), 김제혁이 교도소장을 형님이라 부르며 아부를 해 주말에 온실의 야구 연습장 자유 사용권을 얻는 것(7회), 김제혁이 기부 거래를 하는 것(8회), 김제혁이 자신을 죽이려 한 뜯마니를 폭행하고 이를 이준호가 방관하는 것(11회), 김제혁이 교도소장으로 부터 휴대폰을 받아 사용하는 것(12회), 그리고 김제혁이 이준호, 팽 부장, 교도소장 등을 통해 일반 수감자들이 먹을 수 없는 커피, 치킨, 음료 등을 먹는 것 등 김제혁의 수감 생활은 사실상 온갖 불법과 편법, 특혜로 점철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폭력이 정당화되고 적폐가 옹호되는 것은 그것이 결

20) 이 때문에 팽 부장과 대립하는 나 과장은 마치 악인처럼 그려진다. 작품 안에서 나 과장은 유일무이하게 불법과 편법을 쓰지 않는 원칙주의자이다. 하지만 팽 부장의 원칙을 깨는 행동이 가족애/인간애로 포장되기 때문에 반대급부로써 나 과장은 융통성 없는 인물을 넘어 원칙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수감자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작품 안에서 나 과장의 행동은 수감자를 일부러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기 않는 사이 쌓인 적폐가 유발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국 공동체를 위한다는 선의(善意)로 포장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공동체는 다름 아닌 자본주의적 공동체다. 김제혁이 각종 폭력, 편법, 특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와 그럼에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그에게 돈이 있고 그것이 하나의 권력이자 가치로서 존중받기 때문이다. 이는 자본주의 질서가 모든 공간, 모든 공동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돈으로 표상되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은 전체를 위한 이타적인 행동으로 치환되면서 옹호된다.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두 가지이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인물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가 그것이다.

3. 경제적 무(無) 재생산자의 배제

이 장에서는 자본주의 공동체의 울타리 밖에 남겨져 우리라는 전체에 포함되지 않는 인물들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결론을 다소 앞당겨 이야기하면 이들은 자본주의, 나아가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응하지 못한, 혹은 이 체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존재들이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성공 신화는 이러한 암적 요소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다.

2상 6방의 수감자들은 김제혁을 필두로 대부분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김제혁은 복역 중에 어깨를 다치지만 좌완 투수에서 우완 투수로 변신해 재기에 성공한다. 장기수는 존재조차 몰랐던 딸이 성인이 되어 찾아오면서 삶의 목표를 갖게 되고 출소 후의 건설적인 미래가 암시된다.²¹⁾ 장발장은 장기수와 유사 부자관계를 형성하고 그의 희생을 통해 절도 습관을

21) 장기수가 딸의 등장으로 인해 진취적인 성격으로 변하는 것은 다소 작위적인데, 이러한 '혈연에 종속된 비주체적 개인'은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고질적인 문제 중 하나로 지적을 받는다. (이다운,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 서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58~59면 참조)

버린 뒤 성실하게 일을 한다. 고박사는 자신에게 누명을 중용한 상사를 협박, 더 이상 회사에 휘둘리지 않는 당당한 가장으로 거듭난다. 유 대위는 데면데면했던 형과 화해하고 그의 도움으로 무죄를 입증 받는다. 법자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대신 내준 김제혁을 형으로 모시면서 출소 후 그의 매니저가 된다.

하지만 이들과 달리 해피엔딩을 맞이하지 못하는 인물들이 있다. 문래동 카이스트와 한양이 그들이다. 13회에서는 문래동 카이스트가 아들에게 간 이식을 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진다. 문래동 카이스트의 첫 번째 아내가 찾아와 아들이 간 이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알린다. 결혼을 하고 자식이 있음에도 또다시 4번이나 결혼을 할 정도로 바람기가 많은 문제적 가장이었던 문래동 카이스트는 아들을 위해 간 이식을 결심한다. 하지만 아들은 어린 시절 가족을 버린 아버지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간 이식을 거부한다. 결국 간 이식 수술이 이루어져 아들은 살아난다. 하지만 아내와 아들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문래동 카이스트의 부탁을 거절한다. 이후 문래동 카이스트는 다른 교도소로 이감되어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한양의 결말은 더욱 극적이다. 15회에서는 한양이 출소하는 에피소드가 그려진다. 한양의 부모와 동성 애인은 교도소 밖 식당에서 그를 기다린다. 하지만 출소 직후 한양은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붙잡힌다. 한양 역시 수갑을 차고 호송되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다른 수감자들의 결말이 크든 작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해피엔딩으로 그려지는 것에 비해 이들의 결말은 정반대인데, 이에 대한 시청 반응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아들이 죽어가는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금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고자 간 이식에 동의한 문래동 카이스트가 끝내 가족에게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결말은 ‘안타깝지만 수궁할 만하다’라는 반응²²⁾이 대부분이었다. 상술했듯이 가족을 버리고 사기라는 범죄까지 저지른 잘못된 행동을 한 인간에 대한 당위적

결말이었기 때문이다. 반면 한양의 결말은 방송 당시 큰 논란이 되었는데, 한마디로 말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까지 해야만 했냐’라는 반응²³⁾으로 요약된다. 그 전까지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겉으로 보이는 선/악의 인물이 실은 정반대였다는 식의 반전을 여러 차례 보여주었고 그 반전은 어느 정도 복선이 담보된 상태에서 개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한양의 재범은 아무런 전조 없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진다. 한양은 고열에 시달려도 감기약조차 거부할 정도로 마약을 끊기 위해 노력했고 실제로도 거의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찾아온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결말에 이른다. 그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이유는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이다.²⁴⁾

왜 두 인물의 결말이 부정적으로 그려졌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개연성을 무시하면서까지 징벌과 축출의 대상이 된 한양의 경우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 하나의 전체로서의 사회 안에서 각 부분들이 정권의 목적에 봉사하고 그 목적을 연장시키기 위해 강제적으로 조정되는 사회²⁵⁾를 전체주의라 했을 때, 이 사회의 문제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면서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것²⁶⁾에 있다. 즉 의도적으로 희생되는 인물을 통해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어떤 이데올로기를 옹호하는지 살펴

22) 정덕현, 「감빵생활 문래동 카이스트와의 이별, 왜 유난히 아쉬울까」, 『엔터테인먼트』, 2018.1.11. (http://entertainment.co.kr/news/news_view.html?idx=7535, 2018.4.22. 검색.)

23) 문지연, 「“해룡이한테 꼭 그래야 했나”...종영 앞둔 '감빵'의 충격」, 『스포츠조선』, 2018.1.18.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1190100142760010141&servicedate=20180118>, 2018.4.22. 검색.)

24) 물론 애인과 부모가 마중을 나오지 않아 허탈감을 느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미 한양은 애인과 화해하고 서로의 진심을 확인해 그를 믿어 의심치 않는 상태였고, 반대로 어머니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것을 안 뒤 부모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를 하지 않는 상황이었다. 즉 다소의 허탈감을 느낄 수는 있었겠지만 출소 전후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보면 그것이 다시 마약을 할 정도로 큰 충격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25) 셸던 윌린, 우석영 역,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2013, 88면 참조

26)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251면 참조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일단 한양은 마약사범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 없다. 사전적으로 마약류는 “사람의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진통, 마취 작용을 갖는 물질 중, 습관성이 있어서 오래 쓰면 중독이 되기 때문에 법률상 단속 대상이 되는 물질을 통틀어서 이르는 말”로 의학적 용어가 아니라 법률적 용어이다. 쉽게 말해 ‘효과와 ‘중독성’에 대한 사회적/법적 판단이 마약류를 정의하는 요지인데, 사실 이 둘은 분리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마취/환각/각성 등의 효과가 있음에도 중독성이 없거나, 특정 효과가 없음에도 중독성이 있는 물질은 존재하기 어렵다. 예컨대 인간은 쾌락을 향유하고 싶은 욕구가 존재하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에도 즐거움이라는 효과와 중독성은 공존한다. 효과와 중독성이 문제가 되고 마약류가 되는 것은 그 파급력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으로 확장될 우려가 있을 때이다.²⁷⁾

이때의 집단적 차원의 영향력은 그 의미가 매우 다양하다. 1차적으로는 특정 물질의 효과가 자신을 넘어 타인에게까지 확대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담배가 유발하는 간접흡연, 마약 복용자가 일으키는 뺑소니 사고 같은 것이 한 예이다. 2차적으로는 사회적 이익 같은 것이 있다. 술이나 담배를 마약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을 마

27) 대마초가 논란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영국에서 이뤄진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담배가 대마초보다 더 심각하게 자신과 타인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약물이며 특히 의존성(중독성)의 측면에서 담배는 헤로인과 코카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Ranking 20 Drugs and Alcohol by Overall Harm”, *ProCon.org*, 2012.1.4. (<https://medicalmarijuana.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4477>, accessed 2018.4.22.)) 그렇다면 왜 한국에서 담배는 합법이고 대마초는 불법인가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해 조석연은 1970년대 한국의 마약에 관한 정책적 측면을 살펴본 바가 있다. 그 전까지 마약류가 아니었던 대마초는 1970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마약류로 분류되기 시작했고, 1976년 ‘대마관리법’이 시행되어 그 해 1,460명의 대마사범이 적발되었다. 이에 조석연은 1970년대 이전 청년문화가 대마초 유행의 동력이었고, 유신정권에서는 국민의 풍속 교화와 경제개발을 이유로 대마초를 의도적으로 ‘사회악이자 ‘망국의 도구로 규정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석연, 「1970년대 한국의 대마초문제와 정부 대응」, 『인문사회 21』 제8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387~409면 참조)

약으로 분류할 경우 예상되는 사회적 효과가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금주법의 시행처럼 통제되지 않는 음지 산업화와 그로 인한 폐해가 예상될 뿐 아니라 세수도 줄어 국가 경제에 손실이 발생한다. 또한 기호식품이 사라지거나 그 대체재가 부재함으로 인해 스트레스와 피로를 해소할 수단이 사라진 인간은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술이나 담배 같은 일종의 ‘허용한 마약’을 두는 것은 그래서이다. 국가의 엄격한 규제 하에 두고 이들로 인해 얻어지는 수익을 다시 사회와 국민에게 환원하면 이는 거시적으로는 사회적 이익으로 계산된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유독 마약 범죄와 한양이 부정적으로 그려진 이유는 이 둘 모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작품 안에서 한양이 마약을 투약하고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상황은 그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마약으로 인한 2차 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현실에서 상시적인 공포로 존재하기에 범죄를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하에서 한양의 결말은 정당화된다.²⁸⁾ 하지만 2장에서 살폈듯이 자본주의적 가치를 중시하는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후자의 측면, 마약으로 인한 2차적 효과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마약은 사회적/집단적 차원에서 경제 유발 효과가 전혀 없고 오히려 사회의 경제력을 퇴보시킨다. 일단 마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술이나 담배처럼 세금이 책정되지 않고, 때문에 아무리 그 규모가 커져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득이 되지 않는다. 또한 투약자는 심신 미약 상태가 되어 생산 활동을 하지 못하고, 소비 활동 역

28)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한양 역을 맡은 배우 이규형도 인터뷰에서 “내 캐릭터 결말에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시지만, 바람직한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고 감독님의 결정에 만족하고 있다. 범죄자를 미화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 역시 해룡이가 출소하자마자 마약을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많이 놀랐다. ‘그냥 다시 마약을 하는 건가 싶었다. 해룡이가 귀엽게 그려지기는 했지만, 마약을 하는 행위 자체는 절대 미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초범이 재범이 되고 상습범이 된다고 하더라. 적절한 결말이었다고 본다.”면서 한양의 결말이 현실에 대한 교훈적 메시지에 이뤄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효정, 「감빵 이규형 “신원호PD, 내 만취연기 보고 캐스팅…감격」, 『뉴스1』, 2018.1.28. (<http://news1.kr/articles/?3219103>, 2018.4.22. 검색))

시 여타 산업에 투자하기보다 세금이 책정되지 않는 마약 구입에 집중함으로써 자본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못한다. 이때 특히 한양이 서울대를 나온 약사라는 점도 함께 고려할 만하다. 일반적인 관점에서 그는 유능한 인재이고 그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들어낼 경제적 효과는 평범한 사람보다 더 크다. 하지만 그런 인재가 마약을 하게 되면 미래의 경제적 효과는 모두 상실되고 더 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한다. 특정 타자에 대한 혐오와 경멸이 개인에게 전달하는 사회의 메시지에 의해 배양된다고 할 때,²⁹⁾ 한양의 결말은 마약 범죄에 대한 경종의 취지를 넘어 경제적 효과를 스스로 퇴보시킨 인간에 대한 자본주의의 경고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배드엔딩의 이유를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경제적 재생산이라는 측면에서 접점을 이룬다. 한양은 동성애자다. 생물학적으로 동성애자는 출산을 하지 못하고, 이는 자본주의의 측면에서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인간을 생산하지 못하다는 뜻이 된다. 동성애가 윤리성과는 별개로 자본주의의 측면에서는 일차적인 생산성이 없기 때문에 부정된다는 것이다. 문래동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다. 일단 그는 나이가 많기 때문에 젊은 수감자들(김제혁, 법자, 유 대위)보다 미래의 경제적 효과가 떨어진다. 그렇다고 나이가 많은 수감자들(장기수, 고박사)처럼 미래의 생산성이 예상되는 것도 아니다. 문래동 카이스트는 이미 자신보다 경제적 효과가 높은 아들을 낳았고, 아픈 아들에게 간을 내어줌으로써 아들의 미래 생산성을 회복시켰다. 하지만 그 자신의 존재 여부가 경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 장기수는 출소 후 여러 사업을 할 것이 예고되면서 지속적인 경제 효과가 예상되고, 고박사는 가족을 회복함으로써 역시 자식을 경제적 인간으로 키울 것이며 애초에 대기업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자신이 경제 효과가 높다. 그렇지만 문래동 카이스트는 6회의 체육대회 에피소드에서 그러지듯이 늘 아내들에게 경제적으로 기대는 인물이

29) 헬렌 조페, 박종연·박해광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147면.

고 그가 부유했던 것은 사기도박을 하던 과거뿐이다.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의 경제적 효과는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0에 가깝다.

이와 더불어 다른 수감자들과 달리 이들이 가족, 혹은 가족 같은 주변 사람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여동생을 지키려다가 과잉방위를 한 김제혁, 친동생과도 같았던 조직폭력배 동생의 살인에 연루된 장기수, 가족의 생계를 위해 누명을 쓴 고박사, 고참에게 폭행당하면서 저항하지 못하는 관심병사가 안타깝고 화가 나 한 차례 폭행했다가 이를 숨기지 못해 가해자로 지목된 유 대위, 어머니의 수술을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갚지 못한 법자, 딸을 윤간한 부유층 자식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무기수 등과 달리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자기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마약과 사기라는 범죄를 저지른 인물들이다. 다시 말해 이들은 ‘우리’라는 전체가 아닌 ‘나’라는 개인을 위해 살아왔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좇다가 사회에 해악과 손실만 끼쳐 축출되는 인물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주체의 자아는 경제적 삶의 실천과 관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욕망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측면과 관련될 경우에만 허용된다.³⁰⁾ 하지만 이들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무관한 욕망을 품었기에 경제적 관점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있으면 오히려 해가 되는 루저(looser)일 뿐이다.³¹⁾ 이들이 축출되는 것은 그래서이다. 이들은 경제적 재생산을 방해한다. 한 사회의 경제적 재생산은 ‘생산 → 유통/분

30) 서동진, 앞의 글, 186면.

31) 따라서 이들은 속물이 되고자 하나 실패해 속물 되기를 유예한 잉여와는 다르다. 잉여는 체제 안에 포섭되기를 욕망하지만 그에 실패하면서 끊임없이 축적되는 존재이다. 이러한 잉여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가령 인터넷 환경에서 정보자본주의의 밑거름이 되는 것처럼 끊임없이 속물이 되고자 하는 잉여의 욕망은 신자유주의 사회의 토대를 이루기 때문이다. (백옥인, 「속물 정치와 잉여 문화 사이에서」, 김상민 외, 앞의 책, 2013, 3~29면 참조)

배 → 소비'의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³²⁾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는 생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통/분배 및 소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자본주의 공동체는 이들을 배제해버림으로써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개인들이 사회에 편승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다.

그래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의 교화의 의미 또한 잘못을 뉘우치고 갱생하는 도덕적/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모든 수감자들이 도덕적/윤리적으로는 교화가 된다. 하지만 이들이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다. 이 작품에서 죄를 지은 수감자들이 도덕적/윤리적 차원에서 교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그러한 도덕적/윤리적 교화 이후 없거나 적었던 경제력을 확장시켜 자본주의적으로 '성장한 인물들만이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텔레비전드라마의 해피엔딩에 "의심스럽고 불안한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공유된 가치관의 세계"³³⁾라는 의미가 내재되어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한양과 문래동 카이스트의 배드엔딩은 결국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개인의 경제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4. 신자유주의 사회의 성공 신화

문래동 카이스트와 한양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 것에 비해 나머지 수감자들은 가족이나 가족 같은 주변 사람들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된 인물들이다. 즉 <슬기로운 감빵생

32) 유팔무,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경제와 사회』 제 106호, 비판사회학회, 2015, 299~300면 참조.

33)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222면.

활>은 타인을 위하여다가 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에서 만난 타아(他我)들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하는 자본주의적 인간들의 이야기나 다름없다. 이러한 공동체적 유대감, 가족애, 휴머니즘으로 포장되어있는 신자유주의 논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노력과 희생’이다. 개인이 자신, 우리, 사회를 위해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력하고 희생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행동이라는 것이다.

노력과 희생이 극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동갑임에도 그 결말과 형상화가 극명하게 엇갈리는 한양과 유 대위다. 본래 한양의 집은 가난했다. 한양의 부모는 부자가 되기 위해 밤낮없이 일했고 그 결과 지금은 강남의 현찰부자가 되었다. 더불어 한양의 어머니는 부자가 되기 위해 노력하는 사이 아들이 었나갔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찢어짐에도 직접 경찰에게 아들이 마약사범이라는 것을 신고한 인물이다. 그렇지만 자식은 이러한 부모의 노력과 희생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되어 어떻게 자식을 신고할 수 있냐 따지고 부모가 자신을 외롭게 해 마약을 하게 되었다고 변명할 뿐이다. 물론 한양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된 나머지 자신을 방기했다고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상황에서 부모는 돈을 벌어야만 했고 한양이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그 노력 덕분이었다. 그런 점에서 한양의 부모는 ‘하면 된다’와 같은 모토를 그대로 실현한 1970년대 고도성장기 한국사회의 산업역군³⁴⁾을 연상시키고, 한양은 이러한 고속의 경제 발전으로부터 파생된 부산물, 혹은 후속세대처럼 보인다.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적 경제 개발이라는 지상과제로부터 배태된 다양한 소외의 문제들이 한양을 의미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3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이를 안고 가는 대신 버리고 간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1970년대 개발 독재시

34) 이들은 국가의 요구에 순종해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으나 사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계층과 재벌들을 위한 개발 독재에 부품처럼 사용되었다.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21면)

기의 병폐를 은폐함으로써 경제 개발의 동력이었던 노력과 희생의 정당성을 피력하는 구조를 취한다.

유 대위는 이와 정반대다. 유 대위의 집은 중산층이다. 평범한 부모 밑에 나이 차가 꽤 나는 형제가 있고, 동생인 유 대위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했으며 소위 때에는 미국 유학을 다녀올 정도의 유능한 인재가 되었다. 그에게도 한양처럼 희생과 노력을 하는 가족이 존재한다. 동생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대학교수라는 직장마저 팽개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증거와 증인을 모은 형이 그것이다. 한양과 달리 유 대위는 이런 형의 희생과 노력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유 대위는 무죄를 입증 받는 해피엔딩에 이른다. 한양을 개발 독재시기 한국사회의 이면이라고 본다면 유 대위는 경제 발전 이후 안정기에 접어든 한국사회의 청년세대를 연상시킨다. 그는 더 이상 가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에서 개인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음을, 후속세대는 기성세대의 희생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다.

그래서 한양과 유 대위는 마치 한국의 경제 개발기와 경제 안정기를 두 머리로 하는 삼쌍둥이와 같다.³⁵⁾ 다른 점이 있다면 전자가 자본주의적 노력을 받아들이지 못해 배제되는 것에 비해, 후자는 자본주의적 노력을 이미 내면화한 상태이고 그것이 다시 전체주의적인 희생으로 승화됨에 따라 용인된다는 것이다. 유 대위의 에피소드에서 강조되는 가족에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노력을 아름다운 가치로 포장시킨다. 반면 한양의 에피소드에서 자본주의적 노력이 만든 어두운 단면은 노력하지 않는 인물을 배제시켜버림으로써 자연스럽게 무마된다.

물론 집단을 위한 노력과 희생이 경우에 따라서는 긍정적인 가치일 수도 있지만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는 그 집단이 자본주의적 공동체라

35) 두 인물은 ‘~해서는 안 된다와 같은 부정성의 규율사회와 ‘할 수 있다와 같은 긍정성의 성과사회를 지나온 한국사회의 과거를 보여준다.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24~25면 참조)

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주인공 김제혁이다. 김제혁이 2상 6방의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돈과 명성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은 노력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신자유주의 사회의 열매이다.³⁶⁾ 그래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김제혁은 분노 조절 장애 질환자이자 살인자임에도 조금의 비난도 받지 않는다. 그를 비난하는 갈매가염 반장 같은 인물들은 도덕적/윤리적으로도 교화되지 않는 악인으로 그려지고, 그들은 수감자들과 교도관들에 의해 제거된다. <장면 2>는 김제혁이 출소하는 날 새벽 서부교도소 모든 수감자들이 일어나 그를 배웅하는 상황이다. 이때 수감자들은 “김제혁 파이팅!”, “김제혁 선수,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혁 선수”, “잘 가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며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어 수건을 흔들어들고, ‘Bravo, My Life!’³⁷⁾라는 제목의 OST가 흘러나온다. 출소 상황이 마치 민주투사의 출소 장면처럼 미화되는 것이다. 살인이라는 범죄, 교도소 내에서의 술한 폭행과 협박, 그리고 편법과 특혜까지 김제혁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일소되고 한순간에 그를 영웅으로 칭송하는 작위적인 상황이 그려지는 순간이다.



<장면 2>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환대를 거쳐 야구 선수로 복귀하는 김제혁의 결말이 이미 첫 회의 첫 장면에서부터 그려졌다는 점이다.

36) 문강형준,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16~38면 참조

37) 이 노래의 후렴구이자 작품 안에서 등장하는 소설의 가사는 “Bravo Bravo my life / 나의 인생아 / 지금껏 살아온 너의 용기를 위해 / Bravo Bravo my life / 나의 인생아 /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이다.



<장면 3>



<장면 4>

<장면 3>에서 보듯이 투구 연습을 하는 김제혁은 왼손에 글러브를 끼고 오른손으로 공을 던지고 있다. 이후 사실은 김제혁이 왼손 투수라는 점이 드러나면서 오른손으로 투구하는 <장면 3>은 과거가 아니라 어깨 부상 이후 우완 투수로 변신한 미래의 상황이라는 것이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장면 4> 역시 승승장구하던 과거의 모습이 아니라 재기한 뒤의 첫 복귀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김제혁에게는 처음부터 장밋빛 결말이 이미 정해져있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의 노력과 희생이 이야기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은 이 첫 장면에서 집약되어있다. 2장에서 인용한 대사처럼 김제혁은 그 누구보다 노력하며 살아왔고 좌절할 수 있었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아 ‘불사조’라는 별명을 가진 인물이다. 이런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행복한 미래와 성공이 보상으로 주어진다는 것이다. 비록 1년 동안 수감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더 성공할 인생에서 잠시 스쳐지나가는 돌부리에 지나지 않는다. 사람을 죽인 것도 그저 노력하던 사람이 저지른 한순간의 실수에 불과해진다. 노력은 모든 잘못을 정당화하고 성공과 밝은 미래를 보장하는 절대적인 가치다. 어찌면 수감생활도 역경이 아니라 또 다른 노력하는 개인을 만들기 위한 통과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스스로 균열을 노출한다.

김제혁 어떻게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사냐? 여기서 어떻게 더 허리
띠를 졸라매? 어떻게 더 파이팅을 해? 최선을 다했는데,
기회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탓해. 세상이 더 노
력하고 애를 썼어야지. 자리를 그렇게밖에 못 만든 세상
이 문제인 거고, 세상이 더 최선을 다해야지. 욕을 하든
평평 울든 다 해도, 네 탓은 하지 마.

- 8회, 1시간 01분 30초~1시간 02분 30초

김제혁이 수감자 김민성³⁸⁾을 위로하는 상황이다. 모든 일을 자신의 탓
이라며 자책하는 그에게 김제혁은 네 잘못이 아니라고 말한다. 자신과
마찬가지로 김민성도 노력을 많이 했지만 단지 기회가 없어서 보상을 받
지 못했을 뿐이며 그런 세상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보
면 개인의 노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만든 부조리한 사회를 비판하는
대사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이 대사는 다름 아닌 노력의 아이콘 김제혁에게서 나온 것이
다. 그는 노력해서 돈과 명성을 손에 쥔 성공한 인물이고, <장면 3, 4>
에서 암시되었듯이 교도소라는 시련과는 무관하게 미래의 성공이 보장된
인물이다. 때문에 이 대사는 일견 노력하는 개인을 위로하는 것 같아 보
이지만 발언자 자신이 그 노력하는 개인이자 노력의 수혜자이고, 무엇보다
노력의 보상인 돈과 명성을 통해 적폐를 일삼는, 그가 비판하는 사회
의 부조리와 똑같은 인물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기회가 없었다는 말
도 의미심장하다. 이를 바꿔 말하면 똑같이 노력을 해도 기회라는 운이
따라야만 그 노력의 대가가 주어진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38) 김민성은 공시생 시절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던 중 회사 사장으로부터 새벽에 차
를 끌고 지갑을 가져오라는 명령을 받고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취객을 치었다. 하지
만 사장은 자신이 운전하라고 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고, 회사는 운전자 보험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 결국 혼자 잘못을 뒤집어쓴 김민성은 합의금을 내지 못해 실
형을 선고받았다.

이 작품에서 노력은 성공의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이다. 때문에 사실상 김제혁의 위로는 지금처럼만 노력하다보면 언젠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니, ‘죽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하지는 말라’는 무책임하고 위선적인 언사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말로 그 기회가 올 것인지, 아니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노력한 기성세대에 반기를 들거나 그들의 노력과 희생을 인정하지 않은 한양은 이미 배제되었고, 유 대위나 김민성처럼 노력을 내면화한 사람들만 남아버렸다. 이들은 김제혁이라는 자본주의적 리더의 혜택을 받고, 돈과 명성이라는 가치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다. 비유컨대 노력에 눈 먼 자들의 도시인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세계에서는 그 노력에 의문을 품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1970년대 경제 개발기의 노력과 21세기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력이 달라지는 것은 이 부분이다. 과거에는 노력이 곧 성공을 보장했지만 이제 노력은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노력을 자양분 삼아 신자유주의 사회가 유지되고, 그렇기에 신자유주의 사회가 노력을 더더욱 추동한다는 점이다.

사실 자본주의 사회는 합법이든 불법이든 자본의 순환만 이루어지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다. 하지만 마약처럼 자본의 순환을 가로막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양산하는 요소가 늘어날 경우 자본주의 사회는 위기에 처한다. 가령 대기업에 취직하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해야 그로부터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취업대신 아르바이트를 선택할 경우 그 사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다.³⁹⁾

39) 프리(free)와 아르바이트(arbeit)의 합성어로 일정한 직업 없이 돈이 필요할 때만 한시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프리터(freeter)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물론 이들이 속물이 되고자 하는 잉여가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나, 프리터족은 애초에 취업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 재생산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오학수,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일본비평』 제15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112~139면 참고)

하지만 자본의 순환만으로도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 발생한다. 푸코에 따르면 한 나라의 부유화가 임계점을 넘었을 때, 즉 상호적인 부유화를 통해서만 사회가 유지되는 세계화가 요구되었을 때 신자유주의가 시작된다.⁴⁰⁾ 다시 말해 자본주의 사회에는 자본의 순환, 이윤의 증가 같은 조건 외의 무언가가 필요한 순간이 온다. 한국사회에서 IMF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가 자리를 잡게 된 것도 그래서이다. 본래 무역, 그 중에서도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였던 한국사회는 IMF 사태를 맞이하면서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고, 그것은 자유무역협정(FTA), 공기업 민영화,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등의 정책으로 이어지면서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한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원리가 ‘경쟁’으로 옮겨간 것이다.⁴¹⁾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러한 경쟁의 원리를 개인에게도 부여하고, 개인의 성공과 실패를 모두 ‘1인 기업’화된 개인의 역량과 그들 간의 경쟁에 맡긴다.⁴²⁾ 신자유주의 사회의 개인은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기 위해 자기 계발의 이데올로기를 삶의 가치⁴³⁾로 삼은 노력하는 존재들이고, 신자유주의 사회는 이러한 개인의 노력을 통해 유지된다.

그렇다면 국가는 무엇을 하는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국가의 기능을 엿볼 수 있는 것은 수감자들을 교도소로 보낸 사법부, 혹은 사법적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지하듯 자신의 삶을 잘못 ‘경영’한 이들에 대한 교화가 이미 사법적 판단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사법부가 매우 공정하다는 것이다. 행정부라 할 수 있는 교도소 내의 온갖 폭력과 적폐 상황과는 반대로 사법부인 법원의 판단은 언제나 옳다. 슈퍼스타 김제혁의 폭행을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법적 원리에 따라 판결한 것부터 시작해 유 대위의 재심

40)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86~87면 참조.

41) 미셸 푸코, 위의 책, 181면.

42) 문강형준, 앞의 책, 2012, 25면 참조.

43) 문강형준, 『과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46면.

과 무죄를 판단하는 것까지 이 작품에서 내려지는 사법부의 판단은 현실보다 더 공정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법적 정의를 실현한다. 푸코에 따르면 신자유주의 시대의 국가는 개인의 삶에는 관여하지 않고 그들 사이의 경쟁의 메커니즘이 잘 수행되도록 하는 데에만 집중한다.⁴⁴⁾ <슬기로운 감빵생활>에서 법적 공정성을 무기로 스스로에게 당위성을 부여한 국가가 하는 일은 바로 이것이다. 국가는 사회의 질서에서 벗어난 자들, 다시 말해 공정한 경쟁의 규칙을 어긴 자들을 칼 같이 교도소로 보낸다. 그리고 그들 중 교화의 가능성, 즉 경제적 재생산이 가능한 자들만 선별하고 노력하지 않는 자들은 축출시킨다. 이러한 징벌과 교화를 거쳐 살아남은 개인들은 다시금 공정한 경쟁에 뛰어들어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가는 이러한 속아내기 공정을 무기한으로 관리 감독한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기획의도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만약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교도소에 갇힌 범죄자가 되었다면?

범죄자를 가두는 줄만 알았던 차가운 창살과 높은 담장 안에 당신이 갇혔습니다. 자,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하루아침에 교도소에 갇히게 된, 슈퍼스타 야구 선수 김제혁의 교도소 적응기이자, 최악의 환경에서 재기를 위해 노력하는 부활기이며, 교도소라는 또 다른 사회에서 살아가는 성장기이다.⁴⁵⁾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개인에게 교도소에 갇히는 것을 상상하게 만든다. 그곳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10명이 넘는

44) 미셸 푸코, 앞의 책, 2012, 219면.

45) <슬기로운 감빵생활> 홈페이지 기획의도, <http://program.tving.com/tvn/prisonplaybook/4/Contents/Html>.

사람들과 살을 부대끼며 살아야하는” 매우 열악한 곳이고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곳이다. 작품은 다시 두 가지를 묻는다. 그런 곳에서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다면 역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전자가 ‘슬기로운’ 생활로 포장된 폭력과 편법이라면 후자 또한 ‘슬기롭게’ 노력하는 삶이다. 어떤 질문에 답을 하든 결국 길은 하나로 이어진다. 살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신을 기업화해 자기 계발을 멈추지 말라는 것이다.

끝으로,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노력이 왜 양가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는지 살펴보자. 노력과 그 결실을 환상적으로 구조해내는 이 작품에서 노력은 힘들어도 해야만 하는 것이다. 노력하면 누구나 김제혁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 작품의 메시지다. 물론 노력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교도관 이준호처럼 타고난 무언가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⁴⁶⁾ 만약 그런 ‘금수저’ 같은 타고난 요소가 없다면, 노력해야 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한양처럼 도태를 넘어 격리되고 버려진다. 반면 노력하는 사람은 언젠가 기회를 얻어 성공하게 되고, ‘금수저’ 같은 배경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그악스러운 신자유주의 사회는 단지 정책적으로,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국가 정책이 특정 노선을 취했다 하더라도 곧바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다.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또한 IMF 전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시민사회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신자유주의와 경쟁을 통한 승리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견고한 체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⁴⁷⁾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

46) 이준호는 처음부터 야구에 재능이 있었고, 고등학교 시절에는 두각을 보이지 못했던 김제혁과 달리 최고의 유망주였다. 부상으로 인해 야구를 그만둔 후에는 잠깐 공부를 해 대학에 진학했고, 대학에서는 취미로 창업을 해 훗날 대기업이 될 회사를 만들었다. 회사를 나온 후에는 역시 잠깐 공무원 공부를 해서 교도관이 되었다. 모든 면에서 천재적인 타고남이 있는 것인데, 작품에서는 이를 김제혁을 통해 ‘재능이 넘쳐서 아무 일이나 잘한다.’라는 식으로 표현한다.

다 근원적인 문제는 신자유주의 이전부터 한국사회에 존재했던 경제적 성공에 대한 열망, 그 과정이자 결과물인 적폐를 옹호하는 속물자본주의적 근성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러한 성공은 1970년대 개발 독재시기가 낳은 수많은 병폐를 (무)의식적으로 은폐하고 쌓은 신화에 불과하다. 한국사회 스스로 상상한 신화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담겨 있다는 것이다. 작품에 그려진 신자유주의 시대의 노력과 성공에 대해 환멸과 동경이라는 양가적 반응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여기 모습이지만, 이미 그때-거기에서부터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돌이켜봤을 때, 김제혁이라는 유능한 리더를 낳은 것은 누구인가? 그에게 돈과 명성을 부여하고, 그 돈과 명성으로부터 자행되는 폭력과 적폐를 용인한 것은 누구인가? 김제혁을 만든 것은 결국 자본주의와 전체주의가 착종된 한국사회이고, 그 사회의 논리를 내면화한 모든 사람들이다. 노력의 아이콘 김제혁은 과거 한국사회의 신화이면서 동시에 현재 진행형으로 신화화되고 있는 성공⁴⁸⁾에 대한 열망이다. 그렇기에 그는 불편한 동경의 대상이다. 작품 속에서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 신자유주의 논리에 거부감을 느끼면서도 그 성공 신화의 혜택을 누려 군림하고자 하는 분열적 심리가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시청하게 만든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5. 나가며

텔레비전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여러 모로 한국사회를 연상시키는 작품이다. 표면적으로 강조되는 휴머니즘적 요소들은 비록 현실

47) 유팔무, 앞의 논문, 309~310면 참조.

48)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반비, 2015, 182면 참고.

이 각박하다 하더라도 그 속에 아직은 인간적인 정이 남아있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진한 감동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의 논리가 결합된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옹호와 동경의 시선이 담겨 있다. 이 글에서 주목한 것은 이러한 작품의 이면적 측면이었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교도소 수감자들은 돈과 명성을 지닌 주인공 김제혁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적 공동체로 재탄생한다. 이에 따라 공동체의 보호, 혹은 이익을 위한다는 명목 하에 각종 폭력과 편법, 특혜가 자행된다. 그럼에도 그것은 나와 우리가 속한 전체를 위한 행동으로 그려지면서 긍정적으로 수용된다. 또한 이렇게 재편된 자본주의적 집단은 경제적 재생산을 저해하는 인물들을 차단해버린다. 현재적으로나 미래적으로나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인간은 공동체에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들을 배제함으로써 노력이라는 신자유주의의 동력이 강조되고, 그것은 다시 모두를 위한 희생으로 포장된다.

신자유주의의 관점에서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보았을 때 특히 연상되는 것은 한국사회의 경제사이다. 주지하듯 1970년대는 국가 주도의 전체주의적 경제 개발이 이루어진 시기이다. ‘하면 된다’라는 모토가 상징하듯 이 시기 개인의 노력은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었고, 개인의 성공은 다시 사회 전체의 이득으로 환원되었다. 시간이 흘러 경제 개발이 궤도에 오르고 안정기에 접어들 1990년대 이후 노력의 의미는 변화했다. IMF 사태 전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고, 또한 그것이 한국사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노력은 누구나 필수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이 되었다. 끊임 없는 경쟁 체제 속에서 개인은 노력해야만 성공을 꿈이라도 꿀 수 있게 되었고 신자유주의 사회는 그러한 노력 끝에 성공한 개인의 신화를 전시한다. 이러한 역사적으로 구조된 성공 신화가 은폐하는 것은 개발 독재 시기의 병폐이고, 부정하는 것은 노력하지 않는 개인이다.

하지만 노력이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노력의 결과 또한 경

쟁의 성패로 정해진다는 사실은 짙은 피로를 선사한다. 그것은 신자유주의 시대 개인이 애써 잊고 싶은 진실이다. 2장에서 언급했듯이 주인공 김제혁은 분노 조절 장애 질환자이다. 그에게 누적된 스트레스가 가족으로 상징되는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는 (무)의식적 강박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또한 그 수단으로써 노력과 경제적 성공이 요구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텔레비전드라마 속의 인물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의 교도소 내 폭력적/특혜적 행보는 만족감과 불편함을 동시에 느끼게 한다. 그것은 노력하는 우리가 김제혁처럼 보장된 성공을 선망하지만, 그가 겪는 스트레스 또한 이미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의 사람들은 김제혁과 같은 예비 분노 조절 장애 질환자일지도 모른다.

<슬기로운 감빵생활> 제작진의 전작이라 할 수 있는 <응답하라> 시리즈와 다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이 대목이다.⁴⁹⁾ 좋은 작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가족의 범주를 확장시킴으로써 신자유주의에 지친 현대인들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측면이 존재했다.⁵⁰⁾ 물론 <슬기로운 감빵생활>에 그러한 위무적 속성이 전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높은 시청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청자는 분명 작품에 열광했고 작품을 통해 치유를 받았다는 시청 의견도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차후 보다 확장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 시대 텔레비전드라마란 무엇인가라는 본질적 질문일지도 모른다. 문체적 현실을 그린 텔레비전드라마가 치유와 기망의 가능성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지적⁵¹⁾은 단순한 양시론(兩是論)이 아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49)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신원호 PD는 <응답하라> 시리즈를 연출했고, 정보훈 작가 또한 <응답하라> 시리즈의 보조 작가였다.

50)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 - tvN <응답하라 1994>(2013)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63면 참조.

51) 윤석진, 「신자유주의 시대, '치유(治癒)' 혹은 '기망(欺罔)'의 텔레비전드라마 - 언론과 법조 소재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271~298

기본 속성상 대부분의 텔레비전드라마는 적당히 현실의 문제를 삽입하고 적당히 문제적 시각을 결들이다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이데올로기적으로 순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전복적이지는 않는 이러한 텔레비전드라마의 시선을 고려해보면, 그 안에 그려진 문제적 현실을 통해 진정 치유를 받았는지에 대해 자문을 할 필요가 있다. 아픈 사람을 보면 누구나 측은지심을 느끼지만, 그것이 인간이라면 응당 보이는 기본적인 자극적인 작용-반작용 현상인지 아니면 공감인지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4장에서 인용한 김제혁의 대사가 위로라기보다 위선이었던 것처럼 말이다.

<슬기로운 감빵생활>이 그린 것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의 삶과 그에 따른 보상의 달콤함이다. 그리고 이 작품을 통해 남은 것은 그러한 삶의 방식에 동의하는 현실의 반응들이다. 그 사이 국가는(혹은 텔레비전드라마는) 노력하지 않는 개인을 배제시키고, 포섭된 개인들 간에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감독함으로써 성공 신화를 더욱 장려한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시대 한국사회에 마지막 남은 삶의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것이 텔레비전드라마가 보여주는 진정 ‘슬기로운’ 생존법이라면 현실은 더욱 비관적일 전망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정보훈 극본, 신원호 연출, <슬기로운 감빵생활>, tvN, 총16회, 2017.11.22~2018.01.18.
<슬기로운 감빵생활> 홈페이지, <http://program.tving.com/tvn/prisonplaybook/>

2. 단행본

- 김상민 외, 『속물과 잉여』, 지식공작소, 2013.
- 마리아 미즈, 최재인 역, 『가부장제와 자본주의』, 갈무리, 2014.
- 문강형준, 『파국의 지형학』, 자음과모음, 2011.
- _____, 『혁명은 TV에 나오지 않는다』, 이매진, 2012.
- 미셸 푸코, 심세광 외 역,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난장, 2012.
- _____, 오생근 역, 『감시와 처벌 : 감옥의 탄생』, 나남, 2016.
- 서수균, 『분노와 관련된 인지적요인과 그 치료적 함의』, 한국학술정보, 2005.
- 셸던 월린, 우석영 역, 『이것을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까』, 후마니타스, 2013.
- 윤석진, 『TV 드라마, 인생을 이야기하다』, 충남대학교 출판부, 2010.
- 이득재, 『가족주의는 야만이다』, 소나무, 2001.
-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 -자기계발서 권하는 사회의 허와 실』, 북바이북, 2013.
- 파울 페르하에허, 장혜경 역,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신자유주의적 인격의 탄생』, 반비, 2015.
- 프랑코 모레티, 성은애 역, 『세상의 이치』, 문학동네, 2005.
- 한나 아렌트, 이진우박미애 역, 『전체주의의 기원』 2, 한길사, 2006.
- 한병철, 김태환 역, 『피로사회』, 문학과지성사, 2012.
- 헬렌 조페, 박종연·박해광 역, 『위험사회와 타자의 논리』, 한울아카데미, 2002.

3. 논문 및 기타

- 교정기획과, 「슬기로운 감빵생활 팽부장이부장, 첫 명예교도관 되다」,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8.2.28. (http://www.corrections.go.kr/HP/COM/bbs_0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181&strAnsNo=A&strOrgGbnCd=102000&strRtnURL=COR_2030, 2018.4.16. 검색.)
- 김기봉, 「우리시대 가족이란 무엇인가 : 영화로 보는 질문과 대답」, 『드라마연구』 제30호, 한국드라마학회, 2009.
- 문지연, 「“해룡이한테 꼭 그래야 했나”...종영 앞둔 '감빵의 충격」, 『스포츠조선』, 2018.1.18. (<http://sports.chosun.com/news/ntype.htm?id=201801190100142760010141&servicedate=20180118>, 2018.4.22. 검색.)
- 박소영, 「불편한 감옥 스토리, 신원호 PD는 다를까?」, 『OSEN』, 2017.11.22. (<http://osen>

n.mt.co.kr/article/G1110780774, 2018.4.16. 검색.)

- 백소연, 「살아남은 자들의 기억, 1990년대 재현의 양상—tvN <응답하라 1994> (2013)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33호, 대중서사학회, 2014.
- 양승국, 「응답하라 연작의 서사 전략과 텔레비전 드라마의 서사성: <응답하라 1988>의 시·공간의 구조와 서사적 목소리를 중심으로」, 『관악어문연구』 제41권,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2016.
- 오학수, 「일본의 비정규직 문제의 현상과 전망」, 『일본비평』 제15호,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6.
- 유팔무, 「21세기 한국 사회 재생산의 위기와 복지국가 대안 논의」, 『경제와 사회』 제106호, 비판사회학회, 2015.
- 윤석진, 「신자유주의 시대, ‘치유(治癒)’ 혹은 ‘기망(欺罔)’의 텔레비전드라마 - 언론과 법조 소재 미니시리즈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제92집, 어문연구학회, 2017.
- 윤희정, 「감빵 이규형 “신원호PD, 내 만취연기 보고 캐스팅…감격”」, 『뉴스1』, 2018.1.28. (<http://news1.kr/articles/?3219103>, 2018.4.22. 검색.)
- 이다운, 「한국 텔레비전드라마의 대중 서사 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정덕현, 「감빵생활 문래동 카이스트와의 이별, 왜 유난히 아쉬울까」, 『엔터미디어』, 2018.1.11. (http://entermedia.co.kr/news/news_view.html?idx=7535, 2018.4.22. 검색.)
- 조석연, 「1970년대 한국의 대마초문제와 정부 대응」, 『인문사회 21』 제8권 1호, 아시아문화학술원, 2017.
- “Ranking 20 Drugs and Alcohol by Overall Harm”, *ProCon.org*, 2012.1.4. (<https://medicalmarijuana.procon.org/view.resource.php?resourceID=004477>, accessed 2018.4.22.)

Abstract

The Way of Survival in a Neo-Liberal Age
in the Television Drama <*Seulgiroun Gamppangsaenghwal*>

Park Sangwan

The television drama <*Seulgiroun Gamppangsaenghwal*> (*Prison Playbook*) depicts a process of reformation among inmates of various crimes through mutual interactions.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prison life depicted in the drama and its meanings.

The prison inmates were reorganized into a capitalist community around the main character *Kim Jehyeok* that had both money and reputation. As a result, they would commit violence and expediency in the name of the community protection or profit. Such acts were, however, depicted and advocated as proper acts for the group where you and I belonged. Within the reorganized capitalist community, those who hindered economic reproduction were embodied as negative figures. The individuals with no economic value were excluded from the community both in the present and the future. It was effort and sacrifice that was emphasized in the process. Those who made efforts for success enabled economic reproduction, and their efforts were beautified as sacrifice for the entire group. In a neo-liberal society maintained by individual effort and sacrifice, such effort and sacrifice would be presented as success storie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neo-liberalism had been predicted already at the stage of capitalist market economy. Neo-liberalism settled down by getting tacit agreement from the members of the society since the 1990s. This explains the ambivalent emotions about the way of survival called effort and success stories in a neo-liberal age depicted in <*Seulgiroun Gamppangsaenghwal*>. Living in a neo-liberal age, the member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have both disillusionment and yearning for success stories based on effort.

Key Words : Capitalism, Drug, Effort, Neo-liberalism, <*Saulgiroun Gamppangsaenghwal*>(Prison Playbook), Success, Television Drama, Totalitarianism

접수일: 2018년 5월 9일

심사기간: 2018년 5월 12일 - 5월 27일

게재결정: 2018년 6월 15일